



수산 스님이 직접 개발한 운동.



철저하게 소식(小食)을 실천하는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를 방문한 조계종 총무원장 지관 스님(왼쪽)을 반갑게 맞고있다.



수좌 스님과 함께 포행하는 수산 스님.

잘 때나 일할 때나 화두와 함께



큰스님 편안하십니까
수산 스님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호남지방을 강타한 연이은 폭설에 영광 불갑사도 눈폭탄을 맞은 듯하다. 사방이 새하얗고 군데군데 검푸른 것은 전각과 나무뿐이다.

고불총림 백양사 방장 수산지종(壽山知宗)스님을 찾아 나선 발걸음이 눈길에 막혀 연기되었다가, 어렵게 불갑사 무각선원에서 빌게 됐다.

“눈길에 어려운 길을 하셔야요. 날씨가 차가우니 어여 들어와 차 한잔 하시게나.”

해를 넘겨 세수 85세의 수산 스님은 갑작스런 방문객에게 따뜻한 차부터 권한다. 스님의 인타부는 2년 전에 있고 있었다. 스님은 그때보다 더 건강해 보였고, 무엇보다 온화하고 해맑은 미소가 끊이지 않는다.

불련듯, 노스님에게서는 두 해 동안의 도를 향한 구도행이 그대로 나타나 보이는데 젊은 나는 그동안 무얼 했는지 얼굴이 화끈거렸다.

“눈이 많아도 사나흘은 쉬었다가 내리는데 보름 넘도록 즐기게 퍼 부은 것은 평생 처음입니다. 사람들이 편하게 살려는 욕심 때문에 자연이 파괴되고 있어요. 이번 여름엔 가뭄이 심하고 폭서가 오지 않을까 염려스럽습니다.”

눈길에도 스님을 찾는 방문객은 여전했다. 새벽 2시에 일어난 스님은 저녁나절까지 잠도 안 자고 있어. 스님은 찾는 이가 있으면 언제나 방문을 활짝 열고 손수 맞이한다.

“눈길에 보잘것없는 노승을 찾아오니 고맙소. 와서 공부도 못하고, 살기가 힘들다고도 하고, 잘사는 방법도 물어봐요. 그런데 이네를 이야기들 듣고 보면 대부분 ‘욕심’이 문제입니다. 공부 잘하겠다는 욕심, 잘 살겠다는 욕심 말입니다.”

그래서 스님은 ‘인연 따라 살라’고 강조한다. 먼저 자기 위치를 알아야 하고 분수에 맞게 살라고 한다. 덧붙여 ‘효도’를 강조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 스님의 가르침이다. 이것은 물론 어린아이도 아는 가르침이지만 실천하지 않기에 자꾸 반복해서 들려주고 있다. 그래야 조금씩이라도 바뀌기 때문이다.

저녁 공양상을 받은 스님은 밥그릇에서 두어 숟가락을 덜어낸다. 스님은 소식(小食)과 함께 손수 개발한 운동으로 몸을 돌본다.

스님은 젊어서 어렵게 공부했다. 힘든 시절에 출가했고, 이미 입적한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되어 은사의 사랑도 받지 못했다. 제대로 먹지 못하고 새벽부터 잠자리 들기 전까지 일하며 부전을 살아 강원 이력을 마쳤다. 그러다보니 관절염을 비롯해 디스크, 좌골신경통, 변비에 이르는 생소소 눈머리까지 병이 떨어지지 않았다.

“그때는 거지중이었지. 일하다가 스님들이 경 읽는 소리를 들으면 같이 묵송하고 싶어 가슴이 울렁거렸어요. 그렇지만 당시 편하게 지냈거나 호강한 스님들은 대부분 환속했어요. 힘들게 하는 공부에서 도가 나오는 것이니 쉽게 공부하려고 하지 말아야 해요.”

20여 년 전부터 운동을 시작했다. 잠자리에서 일어나기 전에 근육과 내장을 풀어주는 마사지에서 않고 서서하는 요가에 이르렀다. 혼자서 하는 운동을 개발했다. 발을 180도 펴고, 가슴이 땅에 닿는 스님에게서 85세란 나이는 무색해 진다.

아직도 관절염은 이겨내지 못해 예불은 방 안에서 원불을 모시고 한다. 스님이 직접 청수를 갈고 향 사르고 축비 삼성으로 예를 올린다.

스님의 일과는 예불에 이어 만암 스님에게 받은 ‘시심마’를 화두로 좌복에 앉으며 시작된다. 두어 시간이 흐른 후에 앉은 자리에서부터 1시간가량 운동을 하고, 낮에는 진입로 마을입구까지 행선(行禪)을 빼놓지 않는다. 여기에 스님이 손수 제조한 차를 수시로 마시고, 찾아오는 이에게 권하는 것도 빠지지 않는 낙이다.



욕심 버리고 인연따라 사는 것과 효도하는 것이 잘사는 길임을 강조하는 수산 스님은 매일 불갑사 마을입구까지 포행을 한다.

지난 2004년 고불총림 방장으로 추대되고 바뀐 것이라면 백양사 설선당으로 주석처를 옮긴 것뿐이다. 지난 12월26일 총무원장 지관 스님이 고불총림 선원대중을 위해 공양 올리겠다는 전갈이 왔다.

백양사 설선당으로 자리를 옮겨 지관 스님 일행을 맞이한 방장스님은 “종단 업무로 바쁜 중에도 먼길을 마다않고 찾아와 수행남자들을 격려해 주어 고맙다”며 치하했다.

방장스님은 지관 스님 일행을 접견하고 진입로 초입에 있는 가인마을까지 산책에 나섰다.

“늙은이 사는 모습 앞에서 본다고 특별한 게 있겠어요? 마음을 보아야지. 화두라는 놈은 회유해서 잠을 자거나 일을 할 때도 함께 해야 편합니다. 공부는 그렇게 하는 겁니다. 겉모습 보려하지 말고 속을 봐요.”

결국 노스님의 겉모습만 보며 허무를 보내다가 한 방 맞고 부끄러움에 도망치듯 길을 나섰다.

글=이준엽 기자·사진=박재환 기자

80 평생 무소유 실천

수산 스님은 수산지종 스님은 1922년 전남 장성에서 태어났다.

어려서 부모를 여의고 삼년상을 마친 열아홉(1940년)에 백양사를 찾았다. 이듬해 법안 스님의 위패상좌가 되어 부전을 살며 강원을 이수하고, 1943년 비구계를 수지했다. 이후 오랫동안 만암 스님을 사봉하고 전법계를 받았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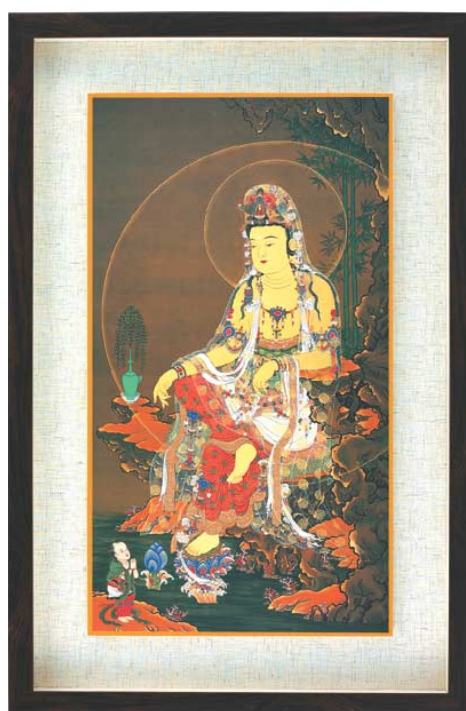
1957년부터 원도 신홍사, 부안 개암사, 백양사 주지를 역임했다. 1975년부터 불갑사에 주석하고 있으며 1992년 학교법인 정광학원 8대 이사장을 역임했다. 이때 스님이 가지고 있던 소장품을 정리해 정광학원에 기증했다.

가진 것이 있으면 공부가 되지 않느냐며 평생 은행통장을 가지지 않았다. 1986년 조계종 원로의원과 2004년 3월 백양사 고불총림 방장에 추대되어 오늘에 이르고 있다.

예불·참선으로 하루 시작, 방문객 언제나 환영
소식하며 스스로 개발한 운동으로 건강 챙겨

수월관음도

가정의 번영과 안녕의 불화!
가정에 1점씩 영험의 가보로!



높이 88cm, 폭 58cm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불화!

관세음보살은 중생들의 고뇌와 고통을 구제하는 자비의 부처님으로 관세음보살에 대한 일반인들의 신앙은 매우 열렬하다.

수월관음도는 하늘에 뜬달이 물속에 비친달이라는 뜻으로 인간이 가지고 있는 환상과 꿈들이 물에 비친 달이 덧없음과 같다는 것을 깨우침으로써 인생의 고뇌를 초월하도록 하고 자비로운 구제자로서의 모습을 보여주는 불화다.

수월관음도 불화는 100% 천연료로 판화용지에 28도 유색판화인쇄와 베를린 화사를 사용해 진품과 다름없이 수백년이 흘러도 변색 되지 않는 특별 제작된 불화다. 영험의 고리 불화 재현을 위해 30년이란 긴 세월을 장인정신 하나로 이 시대를 살아온 불화의 명장 法性 김의식 화백께서 기도와 영험으로 재현시킨 수월관음도는 가정의 번영과 안녕을 주는 가정의 가보도 손색이 없는 불화로 평가받고 있다. 최고급 2단 들출 표구로 제작되어 품위가 있으며 가정과 사업장에 번영과 안녕의 수호신으로 1점씩 꼭 있어야 할 영험의 불화로 축원불공을 마치고 보급하고 있다. 보급대행은 한국불광사에서 전화로 신청하면 정성껏 보내준다.

가격 168,000원
문의전화(02)735-6919

한국불광사

평생 부자지갑

2006 병술년 재운의 해



여성용 황나노장지갑 (진도라세)

남성용 반지갑 (검정색)

존경하는분께 사업성공의 선물!
사랑하는 아내에게 평생부자의 선물!

관세음보살 福 지갑 영험

원하는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리라!

2006 병술년은 재물로 고통받고 있는 중생들이 고통에서 해방되는 재운이 오는 좋은해다. 관세음보살은 어려움에 처해있는 중생들의 고민과 고통을 해결해주고 소원을 성취시켜주는 부처님이다. 세상은돈만 제일 큰 고통이 재물로 인한 고통으로 이것을 해결하는 영험의 비방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이다. 재물이 없어 고통을 받고 있는 중생이 관세음보살 여의주수진언을 몸에 지니고 다니면 곧 보배 재물과 땅과 땅속에 있는 보물까지도 얻으며 가지고 있는 재물이 헛되어 나가지 않는 영험을 담고 있는 법구다. 법구제작전문 불광사에서 기도와 축원 불공속에 만든 관세음보살 복지갑은 지갑일면에 재물로 인한 고통을 해결하는 영험의 여의주수진언을 부착하고 내부에는 만사를 방해하는 집귀와 삼재를 물리치는 삼고금강저를 순금

도금해 넣어 소원을 이루게 했다. 고급 천연 銀 나노 가죽으로 일반지갑과는 비교 될수 없게 섬세하게 꾸며진 최고급지갑으로 출시 3개월도 안돼 아주 어렵던 사업과 정사가 잘되고, 고민하던 부동산이 팔리고, 부도직전에 귀인을 만나고, 제조업은 만들면 팔리고, 부동산과 증권으로 큰돈을 버는 등, 관세음보살의 영험이 나타나는 지갑이다. 여성용 銀나노 보라색은 여성이 항상 지니고 다니면 가정이 번영하고 사업장은 재물이 끊이지 않는다는 뜻을 담고 있다. 전화로 사용하실분의 성명과 생년월일을 알려주면 100일간 2006년 병술년 소원성취를 위한 새벽 축원불공을 드리 드리며 복지갑은 바로 보내준다. 남성용65,000원 여성용95,000원 전화(02)741-4488
농림032-12-193445 이상하

SkyLife 위성방송 무료로 설치해준다.

최고의 화질 세계를 한눈에 난시청 고향집에도 최고!



디지털위성방송 Sky Life설치 가정이 폭발적으로 늘고있다. 무궁화3호 위성에서 발산되는 고품질은 국내방송은 물론 세계를 한눈에 볼수 있으며, 기존의 아날로그와 비교할 수 없는 디지털화질영상과 CD수준의 생생한 사운드로 TV를 볼수 있고 디지털방송만이 가능한 쌍방향 서비스로 TV를 보면서 리모콘으로 각종채널과 각종정보등 다양한 멀티미디어 컨텐츠로TV화면을 통해 조작할 수 있다. 123개의 다양한 채널이 수준높은 문화를 만끽할 수 있으며 자녀들의 영어및 외국어 교육에도 큰도움이 되고 있다. 종전에는 위성방송을 설치하는데 많은 비용이 들어 쉽게 볼수 없었지만 이제는 설치비 없이

123개의 다양한 채널 3개월간 시청료 무료
월시청료 23,000원만내면 한국디지털 위성 방송에서 바로 설치해 준다. 부모님이 계시는 산간벽지 난시청지역에도 즉시 설치되며 이사할때에는 전국어디든 가지고 다닐수 있고, 본인 이 직접 설치할 수 있다. 전화로 설치할 장소와 주소 성명을 알려주면 2일내에 전국 어디든 설치해준다. 병술년새해 Sky Life설치를 신청하는 분께는 가족건강을 위해 꼭 필요한 수액 퍼차단카드를 특별선물로 드립니다.
문의전화(02)741-4477

보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부처님에게서 ‘참사람’ 찾아보라

수산 스님의 가르침

이번 안거기간에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립니다. 눈 빗자루 들라, 화두 들라 여느 때보다 바쁜 때입니다. 몸이 부산하다고 마음까지 멍달아 날뛰어서는 안됩니다. 눈을 치우는 순간에도 화두를 놓지 않았을 때 공부는 다른 월보다 크게 진전될 것입니다. 공부는 안거에 들어간 수좌들만 하는 것이 아닙니다. 재가불자뿐 아니라 인류가 다같이 자기 자성을 돌아보아야 합니다. 이 공부는 세상에 태어난 것을 알고, 웃(육신)을 벗어 버릴줄 아는 공부입니다. 이것을 일러 부처님은 ‘일대사 인연’이라고 하셨습니다.

우리는 무심코 태어난 것이 아니고 인연따라 온 것입니다. 밝게 태어나서 밝게 살다가 밝게 가는 것’이 부처님이 우리에게 주신 가르침입니다.

우리는 전생에 오욕이 툭 떨어져 밝게 살았기에 인간으로 나왔습니다. 그 인연으로 밝게 닦고 살다가 좋게 가야하는데 사람 몸을 받고서는 삼독에 빠져 버리곤 합니다. 밝게 왔건만 어둡게 살다가 어둡게 가는 것입니다. 공부는 어둡게 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는채 가지 않도록 하기위해 하는 것입니다. 바로 ‘자성을 돌이켜 보는 공부’입니다.



수산 스님 방에 모셔진 ‘눈기리고 귀귀고 입입’ 세 분의 부처님.

삼한 사문이 없어지고 연이어 내리는 폭설이나, 쓰나미 같은 환경재앙은 자연이 그러한 것이 아니라 인간이 편해지고 자 하는 욕심으로 오염되었기 때문입니다.

이 욕심은 자연뿐 아니라 정신까지 오염시키고 있습니다. 선방과 세속에서 불법을 이는 이가 공부하는 것은 오염된 것을 정화시키는 작업입니다. ‘회광반조(回光返照)’로 자기를 바로 보아야 합니다.

예부터 ‘먹기 위해 사느냐, 살기 위해 먹느냐’고 고민하는 이들이 있습니다. 물론 누구 하나 이에 대한 해답을 말하지 못합니다. 문자나 논리로 해결되는 것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나는 어떤 물건인가? 어디서 와서 어디로 가는 물건인가?’ 이 자리에 있는 ‘나’라는 물건을 제대로 안다면 먹고 사는 문제에 대해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요즘 세상은 행복주의와 거짓된 알음알이가 난무하고 있습니다. 마음이 밝은 사람이 유식해야 금상첨화지 마음이 어두운 자가 문자만 밝으면 사기꾼이 됩니다.

언젠가 어느 노스님이 부처님 세 분을 보내오셨습니다. 부처님 한 분은 손으로 눈을 가리고, 한 분은 귀를 덮고, 한 분은 입을 막고 계십니다. 그 모양새가 웃음을 자아내고 정감이 가서 방에서 잘 보이는 곳에 모셔두었습니다.

많은 이들이 저를 찾아와 물었습니다. “어떻게 살아야 할까요?” 그러면 저는 그 세 분의 부처님을 가리킵니다. 요즘 수행자나 재가자들에게 하고 싶은 이야기를 부처님이 몸으로 보여주고 있기 때문입니다.

얼마전 서용 큰스님 2주기를 맞아 백양사에서 부도와 사리탑비를 제막했습니다. 서용 스님은 후학들에게 임제선사의 ‘무위진인(無位真人)’을 강조하셨습니다. 이를 실천하기 위해 평생 ‘참사람 운동’을 펴셨습니다.

빈부귀천, 분별심, 삼독심이 없는 것이 ‘무위’로, 명예와 욕망이 떨어진 자리를 ‘참사람’이라고 하셨습니다. 결코 자기마음대로 하는 것이 참사람이 아닙니다. 보



자성 돌이켜 보는 공부에 매진해야 무위진인의 경지에 이른다고 강조하는 수산 스님.

지 않고, 말하지 않고, 듣지 않는 부처님에게서 ‘참사람’을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제가 만약 큰스님으로부터 받은 가르침 가운데 평생 잊지 못하는 것이 있습니다. 큰스님이 하루는 중승(僧)자를 출 줄 아느냐고 물어요. “사람 인(人)번에 일찍 중(僧)자입니다” 했더니 “먼저 사람이 된 후에 비로소 중이 되어야 한다”고 하셨습니다. 참사람이 되지 않고 중이 되면 세속 못지않게 승도가 시끄럽기는 마찬가지입니다.

이 세상은 너나없이 잘 살아가 합니다. 그러나 모두들 잘 살 수 있는 일을 하지 않고 바라기만 합니다. 솔직히 생각해 보세요. 염불을 하면서도 무언가 바라는 마음으로 하지는 않는지요.

세상을 살면서 듣는 즉시 말하고, 보는 즉시 말하다보니 자기 자신은 물론 상대방까지 마음을 상하게 합니다. 실 줄을 알아야 합니다. 주어진 대로 인연따라 살 때 실 줄도 알게 됩니다. 지은 복도 없이 바라는 마음으로 살면 재앙만 따를 뿐입니다.

또한 자신을 돌아보면서 건강도 함께 보아야 합니다. 공부하는 이는 육체와 마음 모두 건강해야 합니다. 항상 바른 자세로 앉으세요. 자세가 바를 때 마음도 바르게 됩니다. 자세가 바빠지면 마음도 새기 마련입니다.

그렇다고 자기 몸만 귀하게 여겨 좋은 것만 먹는 것만 찾아서는 안됩니다. 자기 몸을 천하게 여겨야 몸과 마음이 다 건강해 집니다.

이 노승도 젊어서는 요즘말로 ‘종합병원’으로 불렸습니다. 온갖 병을 다 가지고 살았습니다. 몸이 부실하니 공부는 뒷전이 되기 마련입니다. 그래서 몸을 돌아 보았습니다. 몸을 잡고 나니 잡자는 중에 화두를 들어야 편하고, 일하면서 화두와 함께 합니다.

화두를 놓지 않는다는 것을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언행일치(言行一致)’하면 됩니다. 많이 배우는 것보다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말이나 글, 생각으로 많이 아는 것보다 자기 일상생활에 녹여 실천하는 것이 바로 화두와 함께하는 생활입니다. 새해를 맞아 자기 본분을 잘 지키며 소욕지족(少欲知足)하는 불자가 되기를 기원합니다.

정리-이준엽 기자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 <46>



돈 없이도 할 수 있는 7가지 보시

세해가 밝았습니다. 새해에는 좋은 일만 머리에 떠올리고 좋은 말만 나누며 좋은 것만 보아야 합니다. 시작하는 한 해를 별 탈 없이 지내기 위해서는 그제 가장 좋습니다. 어르신들이 건네시는 덕담이 바로 그것입니다. 덕담이라면 뭐니뭐니해도 경전의 말씀이 으뜸 덕담인데 그중에서도 이 칼럼을 사랑하시는 독자분들께 드릴 가장 덕스런 이야기로 뭐가 좋을까 고민하다가 <잡보장경>에서 그 해답을 찾았습니다.

지난 한 해 여러분은 이웃과 무엇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그리 넉넉하지 않은 형편에서도 평생 모은 돈을 쾌척하는 이들의 소식이 신문에 실리지 않고 실립니다. 그런 것을 보면 아직 우리 사회는 살맛이 납니다. 그렇지만 여전히 고생해서 번 재산을 나와 일면식도 없는 이들을 위해 선뜻 내놓기에는 망설여지는 것이 없지 않습니다.

‘내가 얼마나 고생하며 번 돈인데... 말이 나뉘이지, 생면부지의 남들에게 어떻게 아무렇지도 않게 떼어줄 수 있을까...’ 하지만 새해에는 착한 일도 좀 하고 싶은 것

되어서는 네 가지 말씀씨를 얻는다. 이것을 셋째 과보라 한다.

넷째는 몸을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를 보면 일어나 맞이하여 예배하는 것이다. 이것을 몸을 나누는 일이라 하는데, 그리하면 나중에 반듯하고 크고 다른 이가 우러러보는 몸을 얻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몸이 니구타(尼拘檀) 나무와 같아서 아무도 그 정수를 보지 못하게 될 것이다. 이것을 넷째 과보라 한다.

다섯째는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앞에서 말한 일들로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들에게 봉사했다 고 해도 마음이 온화하고 착하지 못하면 나눔이라고 할 수 없다. 착하고 온화한 마음으로 정성껏 나누는 것이 마음을 나누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밝고 분명한 마음을 얻어 어려서도 알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 일체를 낱낱이 아는 지혜를 얻을 것이니, 이것을 다섯째 과보라 한다.

여섯째는 자리를 나누는 일이다. 부모나 스승, 수행자들을 보면 자리를 떠 앉게 하고, 나아가서는 자기가 앉아 있던 자리마저도 내어서 앉도록 권하는 일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항상 일곱 가지 보배로 된 존귀한 자리를 얻을 것

지난해 이웃과 무엇을 얼마나 나누셨습니까 즐거운 낮빛·부드러운 말씨로 복짓는 새해를

이 솔직한 심정입니다. 이왕 사람으로 태어났으면 뭔가 좀 가치있는 일도 해봐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을 지을 수 있는 방법을 가르쳐드리겠습니다.

“일곱 가지 나눔이 있으니, 그것은 재물이 줄 여섯가지 없으면서도 큰 복을 얻게 해준다. 첫째는 눈을 나누는 일이다. 언제나 좋은 눈으로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들을 바라보고 대하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더 없이 깨끗한 눈을 얻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하늘는 [天眼]이나 부처는 [佛眼]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첫째 과보라 한다.

둘째는 온화한 얼굴과 즐거운 낮빛을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에게 짜뿌린 얼굴로 대하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단정한 얼굴을 얻고,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손금색의 몸이 된다. 이것을 둘째 과보라 한다.

셋째는 말씨를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과 수행자에게 부드러운 말을 쓰고 거칠고 험한 말을 쓰지 않는 것이다. 그리하면 나중에 매끄럽고 거칠없는 말을 하게 되는 솜씨를 얻고, 그가 하는 말은 남이 믿고 받아 주며, 미래에 부처가

이요,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사자범좌師子法座를 얻을 것이다. 이것을 여섯째 과보라 한다.

일곱째는 방이나 집을 나누는 일이다. 부모와 스승, 수행자들을 자신의 집으로 맞아들여서 마을 놓고 집안을 돌아다니고 서거나 앉고 눕게 하는 일이다. 이것을 방이나 집을 나누는 것이라 한다. 그리하면 그는 나중에 저절로 궁전이나 집을 얻을 것이요, 미래에 부처가 되어서는 온갖 선실(禪室)을 얻을 것이니, 이것을 일곱째 과보라 한다. 이 일곱 가지 나눔은 재물이 줄여 들지 않으면서도 큰 복을 가져다주는 것이다.” (잡보장경 제6권)

경전 속에서는 무재침시(無財七施)라고 하여 ‘재물 없이 행하는 일곱 가지 보시’라는 말로 등장하고 있습니다만 요즘의 용어인 ‘나눔’으로 살짝 바꾸어 보았습니다. 새해에는 이 일곱 가지 나눔에서 내가 가장 쉽게 할 수 있는 일부터 한번 시작해 볼 것입니다.

<행복을 찾아주는 부처님 말씀>을 사랑해주는 독자여러분! 새해에는 부디 이 일곱 가지 나눔으로 굳이 돈을 들이지 않고도 복을 지을 수 있는 행운을 함께 누리시길 바랍니다.

■ 이미형(동국대학교 석좌교수)

본 광고는 개인 의견 광고입니다

시국 성명서

한 명의 과학자가 벼랑 끝으로 내몰리고 있습니다. 비상식적인 박해와 굴욕적인 모욕을 가하며 한평생의 뛰어난 과학자를 연구실에서 끌어내려 땅바닥으로 내동댕이치고 있습니다. MBC는 그를 천하에 없는 사기꾼으로 몰고가며 린치를 가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논문 한편을 일부 부풀렸다고 해서 함께 풀팔매질을 하고 있지는 않나요? 그럴 정도로 그들은, 한국은 깨끗한 나라인가요?

우리 대한민국 역사 이래 지금까지 정부보다 더 강한 언론의 힘을 느껴본 때가 없습니다.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 이렇게 물어뜯는 언론은 제가 53년을 살면서 처음 보았습니다. 왜 그럴까요? 왜 그래야만 할까요? 황 우석을 죽이려고 하는것은 상식 밖의 일이며 그 뒤에는 수많은 의혹이 존재함을 의심하지 않을 수 없는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사실을 알았을때 도저히 가슴속에서 솟아올라오는 분노를 참기 어려웠기에 사인의 양심으로 수행자의 관용으로도 용납이 안되어 나서게 된 것입니다.

국민 여러분, 당신의 마음은 어떠하십니까? 잘못된 것을 바로잡는 것이 사람됨 도리가 아니런가요? 황 우석 그는 만능인이 아닙니다. 훌륭한 과학자 일 뿐입니다. 한국을 경제에서 회생시킬 과학자입니다. 그런 그를 밖으로 내모는 것은 참으로 한국의 큰 손실이 아닐수 없습니다. 냉철한 눈으로 언론의 의도를 파악해 주실 것을 간절히 바랍니다.

국민의 힘으로 검찰의 조속하고 공정한 수사속구를 요구해야 합니다. 저들은 증거인멸과 연대모의를 통해 황 우석 죽이기를 더 교활하고 집요하게 펼칠 것이 우려됩니다. 촛불행사에도 참여하시고 서명운동에도 동참해 주실 것을 거듭 부탁드립니다.

승려사인 밀행 두 손 모아 말씀 올렸습니다.

이제 스님 과 신도들도 건강을 생각할 때입니다.
추운겨울 온열기능이 되는 참선방식으로 수행정진 하세요~
스님, 선객, 기공수련자, 일반신도를 위하여... 태화산 광현스님이 20년 경험으로 만든 방식

스님용 참선방식

참선방식

절방식

건강 좌욕방식

지동자방식

법회 및 기도시 가장 편한 자세를 유지하게 하고 세라믹보드의 원적외선과 음이온, 토르말린, 피톤치드에 의한 건강 증대효과가 있습니다.

제품 효능

- 정시간 사용에도 가장 편한 자세 유지와 바닥의 냉기가 스며들지 않습니다.
- 척추의 안목을 예방하여 줍니다.
- 정시간의 좌선 및 운동시에도 전신에 피로감이 오지 않습니다.
- 앉아만 계셔도 단전에 공력이 증가됨을 느끼실수 있습니다.
- 단전의 안정화기에서 연기화신을 이루어 연신환화에 까지 도움을 줄 수 있습니다.

제품 특징

- 원적외선 대량방출에 의한 건식 찜질 효과
- 세라믹히팅보드를 사용하여 전자파 걱정이 없습니다. (열선이 아님)
- 세라믹히팅보드의 복사열은 많이 차지 않습니다.
- 특수제작된 메모리폼은 바른자세를 유지케 합니다.
- 표면에 처리된 은이온수, 토르말린, 피톤치드는 살균, 정화기능이 있습니다.
- 최고급편대사용 및 온도조절기능이 있습니다.

제품 구성

- 커버 : 최고급 내차 및 원대사용
- 열원 : 신기술 "세라믹히팅보드"
- 쿠션 : 특수제작 및 설계 메모리폼
- 컨트롤러 : 온도조절 가능

제품 가격

- 스님용참선방식: 180,000원
- 참선방식: 145,000원
- 절방식: 75,000원
- 건강좌욕방식: 94,000 ~ 98,000원
- 지동자방식: 58,000/88,000원

제품 구입 및 문의

- 전화: 031)429-3383 / 010-6368-3346 011-281-5619
- 홈페이지 : www.heatway.co.kr
- 제 조 원 : 주예간하이텍
- 계좌번호 : 농협 591-17-004807 (예금주: 예간하이텍)

* 제품에 관한 자료를 우송해 드립니다. * 특허 및 인증제품